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감귤농가 경영실태 조사와
감귤산업 발전 방안

濟州大學校 大學院

農業經濟學科

蔡 允 盛

2013年 6月

감귤농가 경영실태 조사와 감귤산업 발전 방안

指導教授 姜 志 勇

蔡 允 盛

이 論文을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3年 6月

蔡允盛의 經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3年 6月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Citrus Industry
and an Analysis of Management Status on the
Citrus Growers

Youn-Sung Chae
(Supervised by professor Ji-Yong K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conomics

2013.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 | |
|-------------------------------|----|
| I. 서론 | 1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 2. 연구 방법 | 2 |
| 3. 선행연구의 고찰 | 2 |
| 4. 논문의 구성 | 3 |
| II. 감귤산업현황 | 4 |
| 1. 감귤농가 현황 | 4 |
| 2. 감귤생산·처리 현황 | 5 |
| 3. 감귤가격 동향 | 7 |
| III. 한·미 FTA와 오렌지 수입 | 11 |
| 1. 한·미 FTA의 농업분야 분석 | 11 |
| 2. 오렌지 수입가격 동향 | 17 |
| 3. 오렌지 수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 | 19 |
| IV. 감귤농가 실태조사 | 24 |
| 1.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 24 |
| 2. 일반 현황 | 24 |
| 3. 농가경영 현황 | 26 |

| | |
|-------------------------|----|
| 4. 농가유형별 경영특성의 차이 | 34 |
| V. 감귤산업 발전방안 | 40 |
| 1.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 40 |
| 2. 생산비용 절감 대책 | 40 |
| 3. 수출확대 대책 | 42 |
| 4. 제도적 지원 강화 | 43 |
| VI. 요약 및 결론 | 46 |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49 |

표 목 차

| | |
|--|----|
| <표 II-1> 연도별 감귤 재배면적 및 조수입 | 4 |
| <표 II-2> 감귤품종별 농가 현황 | 5 |
| <표 II-3> 감귤품종별 처리 현황 | 6 |
| <표 II-4> 연도별 감귤 처리 현황 | 7 |
| <표 II-5> 감귤품종별 주요 도매시장 출하량 및 평균경락가격 현황 | 8 |
| <표 II-6> 감귤품종별 월별 가격 | 9 |
| <표 III-1> 농축산물 수입 현황 | 14 |
| <표 III-2> 과실류 수입 현황 | 15 |
| <표 III-3> 미국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 현황 | 16 |
| <표 III-4> 연도별 오렌지 수입량 및 수입단가 | 17 |
| <표 III-5> 오렌지주스 수입 현황 | 19 |
| <표 III-6>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 20 |
| <표 III-7> 월별 미국산 오렌지(신선)의 수입량과 수입단가 | 21 |
| <표 III-8> 월별 노지감귤·만감류 및 오렌지 가격 | 22 |
| <표 III-9> 감귤 수급 전망 | 23 |
| <표 IV-1> 경영주 일반 현황 | 25 |
| <표 IV-2> 농가의 영농형태 | 26 |
| <표 IV-3> 영농형태별 감귤재배면적 현황 | 27 |
| <표 IV-4> 감귤재배에 투입되는 가족노동 인원 | 27 |
| <표 IV-5> 감귤재배에 투입되는 가족노동력 | 28 |
| <표 IV-6> 감귤재배를 위한 고용노동력 | 29 |
| <표 IV-7> 농가의 감귤재배형태 | 29 |
| <표 IV-8> 소유지와 임차지 보유 현황 | 30 |
| <표 IV-9> 감귤판매처별 판매 선호도 | 31 |
| <표 IV-10> 판매처 선호 이유 | 31 |
| <표 IV-11> 농가의 자금사정 | 32 |

| | |
|---------------------------------------|----|
| <표 IV-12> 농가의 자금사정이 나쁜 이유 | 32 |
| <표 IV-13> 경영비 절감방법 | 33 |
| <표 IV-14> 감귤가격하락 원인 | 33 |
| <표 IV-15> 오렌지수입 대응 방안 | 34 |
| <표 IV-16> 농가유형별 가족노동력 투입량 | 35 |
| <표 IV-17> 농가유형별 연간 고용노동력 투입량 | 36 |
| <표 IV-18> 농가유형별 재배면적 관계 | 37 |
| <표 IV-19> 농가유형별 소득 관계 | 38 |
| <표 IV-20> 재배형태별 감귤재배 여건에 대한 만족도 | 39 |
| <표 V-1> 품종별 10a당 소득현황 | 41 |
| <표 V-2> 연도별 감귤분야 지원 현황 | 44 |

그림 목 차

| | |
|--|----|
| <그림 Ⅱ-1> 감귤품종별 월별 가격 추이 | 10 |
| <그림 Ⅲ-1>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 13 |
| <그림 Ⅲ-2> 연도별 미국산 오렌지(신선)의 수입량과 수입단가 추이 | 18 |

ABSTRACT

This study of citrus production, shipment, consumption patterns and price trends, and orange citrus fruit and citrus farmers Analysis of income management in the hold, and thereby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development of the citrus industry is looking for ways to paper. For this analysis the impact on imported orange citrus industry and citrus for the analysis of the management status of farmers and farm management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by type of farm labor inputs, acreage, farm income, the difference between satisfaction citrus cultivation conditions were compared. As a result, farm income due to the orange earnings and significantly reduced acreage and that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citrus industry to find ways to look at first, the composition should be the basis for high quality trend. High quality trend for mass production and standardization in agricultural production base with a switch to farming is needed. Second, citrus production costs and government support for business support should be made in a variety of fields. Third, the increase in imports and substitute orange fruit (grapes, strawberries) as distributor of the year for citrus fruit consumption is reduced because the measures for securing outlets citrus exports should be expanded. In addition, support for export enterprises and export expansion to reduce operating costs for farmers policy support is needed. Finally, the institutional support of the citrus cultivars grown categorized by type and by type granular policy support will be required.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감귤산업은 제주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제주감귤은 1965년 정부의 특별지원을 계기로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되었다. 이후 감귤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UR협상에 의한 농산물 수입개방, 한·미 FTA 체결,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위상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오렌지 수입과 대체 작물들의 고품질화와 연중 생산·출하가 가능해 감귤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로 이어져 감귤농가는 생존환경을 위협 받고 있다. 특히 감귤농사만을 생업으로 하는 농가인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 심화되고 있으며, 감귤생산기반 붕괴 우려와 농가부채 증가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감귤 재배면적은 최근 줄어들고 있지만,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격경쟁력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감귤 생산량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기술의 발달과 무분별한 비상품 감귤유통 등의 요인들로 인해 생산·출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한·미 FTA를 통한 저가의 오렌지 수입과 농가 경영·출하 상의 문제점들로 인해 감귤 소비량 감소와 신뢰도가 낮아져 감귤가격을 하락시키는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의 미비한 점과 무분별한 감귤출하가 농가소득을 창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감귤농가경영 안정화와 감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감귤농가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 경영인으로써 마인드 부족, 고품질화 생산기술이 부족, 판로 확보의 어려움노동력이 부족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감귤 농가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귤의 생산·출하·소비 형태와 감귤가격

동향 및 수입 오렌지 수입 현황을 분석한 다음, 감귤농가가 안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감귤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논문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연구 및 실증적 연구방법 등을 활용하였다.

제주감귤농가의 경영현황 및 생산·유통 현황, 가격동향, 오렌지 수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서적, 논문, 연구원 및 공공기관의 주요 연구보고서, 기타 각종 간행물의 검토를 통한 문헌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적으로 감귤농가의 경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와 감귤산업에 대해 일반적인 이론과 실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감귤농가의 합리적 경영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감귤농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술하였다.

3. 선행연구의 고찰

강병직의 “감귤산업의 원가절감 방향에 관한 연구”(2002)에서는 감귤산업의 전체적인 원가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감귤산업에 있어서 순손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감귤산업을 구성하는 각각의 원가요소들을 분석하여 생산원가와 유통원가 측면에서 원가를 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감귤산업에 있어서의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품질 좋은 감귤의 적정 생산을 통하여 높은 농가 수취가격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며, 감귤의 유통에 근대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들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농가의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영농을 경영하여 불필요한 원가를 절감하고 수익원을 철저히 파악하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문한필·이현근·박한울은 “한·미 FTA 오렌지 관세인하가 국내 주요 과일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2013)에서는 특정 품목의 수입수요와 수입시기와 동일한 시기

에 출하되는 국산 과일·과채의 수요를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실증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소비대체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오렌지 수입관세 인하로 인한 가시적인 과수농가의 피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감귤, 참회, 딸기, 방울토마토 등 2~5월에 출하되는 과일·과채를 생산하는 과수농가는 간접적인 수입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미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동일한 품목 간 발생하는 직접적인 소비대체효과(감귤과 오렌지) 외에도 국내 농산물 시장 전반에 미치는 간접적인 과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안동환·임정빈·최애선은 “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의 지역별·산업별 과급효과 분석”2009)에서 한·미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 확대가 농업부문 자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유발되는 농업관련 산업의 과급효과와 이러한 과급영향의 지역 간 차이에 주목하여, 한·미 FTA의 농업부문 영향에 따른 지역별·산업별 과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로는 수입개방의 피해규모가 큰 감귤주산지인 서귀포와 제주 등 제주 지역의 과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하였다.

4. 논문의 구성

Ⅱ장에서는 감귤농가 현황, 감귤 생산·처리 현황과 감귤가격 동향을 알아본다.

Ⅲ장에서는 한·미 FTA의 농업분야 분석, 오렌지 수입가격 동향을 알아보고, 오렌지 수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Ⅳ장에서는 농가실태조사 자료로부터 농가경영 현황과 농가유형별 경영특성의 차이에 대해 통계학적 수단을 통해 검증한다.

Ⅴ장에서는 Ⅳ에서 분석한 농가 현황과 농가유형별 경영특성의 차이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감귤산업 발전 방안을 제언한다.

Ⅵ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II. 감귤산업 현황

1. 감귤농가 현황

감귤은 제주지역 농업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감귤재배 농가 수는 제주지역 전체 농가 중 81%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감귤재배농가는 30,797호로 1970년 1,732호보다 17.8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감귤재배농가는 감소하고 있다.

<표 II-1>은 연도별 감귤재배 면적과 농가 수 및 조수입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1> 연도별 감귤 재배면적 및 조수입

(단위 : ha, 백만 원, 호, 천원)

| 연도별 | 면 적 | 조수입 | 재배농가 | 호당 조수입 |
|------|--------|---------|--------|--------|
| 1980 | 14,094 | 54,500 | 19,996 | 2,725 |
| 1990 | 19,414 | 315,100 | 25,616 | 12,300 |
| 1995 | 21,605 | 433,447 | 26,589 | 16,302 |
| 2000 | 25,796 | 370,811 | 36,590 | 10,134 |
| 2005 | 21,430 | 600,639 | 30,659 | 19,591 |
| 2010 | 20,747 | 668,482 | 30,905 | 21,630 |
| 2011 | 20,608 | 764,158 | 30,797 | 24,813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2011.

2011년 감귤재배면적은 20,608ha로 1970년 4,842ha보다 4.3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1970년부터 1998년까지 증가해 오던 감귤재배면적은 1999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감귤농가당 재배면적은 1970년 2.79ha에서 2011년에는 0.67ha로 감소하여 농가당 재배면적이 소형화 되고 있다.

감귤의 조수입은 2011년 7천641억 원으로 2007년 조수입 4천318억 원 대비 43% 증가하였다. 조수입 증가의 주요요인은 고품질 감귤 생산과 감귤유통명령제

의 시행, 감귤원 폐원 등에 의한 적정한 유통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07년 감귤의 해결이 현상으로 인해 과잉 생산되어 조수입은 1995년 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꾸준한 감귤생산 관리, 고품질 감귤로의 품종 전환, 1/2 간벌, 감귤유통명령제의 철저한 시행으로 2011년에는 감귤산업 조수입 7천641억 원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농가 호당 조수입은 2004년부터 20,000천원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1년 농가호당 조수입은 감귤산업이 시작된 이래 최대인 24,813천원을 달성하였다. <표 II-2>은 감귤품종별 농가를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II-2> 감귤품종별 농가 현황

(단위 : 호)

| 구 분 | 총괄 | 노지온주 | 월동온주 | 만감류 | 하우스온주 |
|-------|--------|--------|-------|-------|-------|
| 계 | 30,797 | 23,935 | 1,389 | 4,606 | 867 |
| 제 주 시 | 10,546 | 9,181 | 460 | 861 | 44 |
| 서귀포시 | 20,251 | 14,754 | 929 | 3,745 | 823 |

주) 전체 농가 수에서 중복 농가는 제외되었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2011.

감귤재배 농가 수는 30,797호로 도내 감귤재배 농가 수는 38,208호의 약 81%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시가 10,546호이며 서귀포시는 20,251호이다. 감귤재배 농가는 서귀포시가 제주시보다 약 2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노지온주 23,935호 월동온주 1,389호, 만감류 4,606호, 하우스온주 867호로 노지온주 감귤 농가가 가장 많다.

2. 감귤생산·처리 현황

감귤은 전국주요과실생산량¹⁾에서 감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2를 차지하고

있다. 감귤의 생산은 해거리 현상으로 인해 연간 변화가 심한편이다. 그러나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까지는 해거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2010년에는 568,478톤이 생산되었으며 2011년에는 588,054톤으로 생산량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품질 품종으로의 전환, 감귤유통명령제 실시, 시설재배 등에 따른 생산시기 및 출하시기 조절기능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표 II-3>은 감귤 품종별 처리 현황을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II-3> 감귤품종별 처리 현황

(단위 : ha, 톤)

| 구 분 | 총괄 | | 노지온주 | | 월동온주 | | 만감류 | | 하우스온주 | |
|-------|--------|---------|--------|---------|------|--------|-------|--------|-------|--------|
| | 면적 | 처리량 | 면적 | 처리량 | 면적 | 처리량 | 면적 | 처리량 | 면적 | 처리량 |
| 계 | 20,608 | 588.054 | 17,626 | 500,106 | 910 | 21,056 | 1,777 | 45,085 | 295 | 21,807 |
| 제 주 시 | 6,771 | 164.655 | 6224 | 155.033 | 196 | 3,895 | 336 | 6,988 | 14 | 892 |
| 서귀포시 | 13,837 | 423.399 | 11,401 | 345.073 | 714 | 17,161 | 1,441 | 38,098 | 281 | 20,915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2011.

제주도의 주요 감귤류 처리량은 전체 588,054톤으로 재배면적은 20,608ha이다. 감귤품종별 처리량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노지온주 500,106톤, 월동온주 21,056톤, 만감류 45,085톤, 하우스온주 21,807톤이다.

1990년대에 감귤 출하량의 90%이상은 국내 생과용으로 소비되었다. 그러나 2010년산 감귤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68%가 국내 생과용으로 소비되고 가공용으로 14%, 수출, 군납, 기타소비용으로 19%정도 처리되고 있다.

2011년산인 경우에는 생과용 63%, 가공용 18%, 기타 19%로, 생과용으로 소비되는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가공용과 기타 소비용으로 분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감귤 가공 산업이 발달과 수출이 확대되는 있음을 말해준다. <표 II-4>는 연도별로 처리형태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1) 감귤, 사과, 포도, 복숭아, 단감, 배 생산량은 1,862.2천 톤이다.

<표 II-4> 연도별 감귤 처리 현황

(단위 : 톤)

| 구 분 | 2008년산 | | 2009년산 | | 2010년산 | | 2011년산 | |
|-----|---------------------|-----|---------------------|-----|---------------------|-----|---------------------|-----|
| | 수량 | % | 수량 | % | 수량 | % | 수량 | % |
| 합계 | 592,160 (22,356) | 100 | 741,014 (22,635) | 100 | 568,478 (21,602) | 100 | 588,054 (21,807) | 100 |
| 상품용 | 427,669 (20,889) | 72 | 519,423 (20,226) | 70 | 385,455 (19,382) | 68 | 371,944 (19,283) | 63 |
| 가공용 | 88,664 | 15 | 123,551 | 17 | 81,117 | 14 | 102,933 | 18 |
| 기 타 | 75,827 (1,467) | 13 | 98,040 (2,410) | 13 | 101,906 (2,220) | 18 | 113,177 (2,524) | 19 |

주) 기타는 수출 2,784톤, 군납 8221톤, 기타소비 109,608(2,524)톤이며 () 내는 하우스온주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2011.

3. 감귤가격 동향

감귤 명목가격은 생산량과 뚜렷한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2003년 이후 유통조절명령제 등 출하조절정책의 시행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¹⁾

2000년 이후부터 감귤 경락가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산 감귤가격은 전년대비 24.2% 증가한 34,293원으로 높게 형성되었다. 그 이유는 감귤유통명제, 고품질 품종으로의 전환 등 출하량과 출하시기 조절이 적절히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품종별로 살펴보면 노지온주와 하우스온주는 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지만 월동온주와 만감류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산 노지온주 출하량은 319,646톤으로 전년대비 5% 감소하였으며 2011년산 만감류 출하량은 19,681톤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노지 감귤농가들이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은행제주본부(2011) 「제주감귤 가격변동성 분석」, p27.

<표 II-5> 감귤품종별 주요 도매시장 출하량 및 평균경락가격 현황

(단위 : 출하량-톤, 가격-원/10kg)

| 구 분 | | 계 | 노지온주 | 하우스온주 | 월동온주 | 만감류 |
|------|-----|---------|---------|--------|----------|--------|
| 2000 | 출하량 | 409,374 | 398,675 | 21,667 | 4,568 | 6,131 |
| | 평균가 | 23,248 | 7,417 | 31,426 | 18,216 | 30,084 |
| 2005 | 출하량 | 491,079 | 446,935 | 21,287 | 8,497 | 14,360 |
| | 평균가 | 23,147 | 12,133 | 34,336 | 18,654 | 27,468 |
| 2010 | 출하량 | 385,054 | 335,693 | 19,382 | 13,780 | 16,199 |
| | 평균가 | 27,614 | 13,191 | 43,160 | 17,882 | 36,223 |
| 2011 | 출하량 | 370,996 | 319,646 | 19,283 | 12,385.9 | 19,681 |
| | 평균가 | 34,293 | 13,883 | 41,016 | 39,028 | 43,246 |

주) 주요 9개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일 평균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했음.

주) 하우스온주, 월동온주, 만감류는 10kg으로 환산하여 산출했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2011.

2011년산 감귤 재배작형별 가격추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노지온주의 가격수준은 가장 낮으나 변동 폭도 다른 감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우스온주의 경우 출하초기에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지만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다른 감귤에 비해 변동 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만감류의 경우 노지온주와 비슷한 시기에 출하되지만 가격이 높고, 출하초기에 형성된 가격수준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귤이 집중 출하되는 10월부터 익년 2월까지 모든 품종의 감귤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노지감귤이 집중 출하되는 11월부터 1월말까지는 공급과잉으로 노지감귤 자체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감귤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감류의 경우 2월부터 5월까지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면서 공급과잉으로 자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6> 감귤품종별 월별가격

(단위 : 가격-원/10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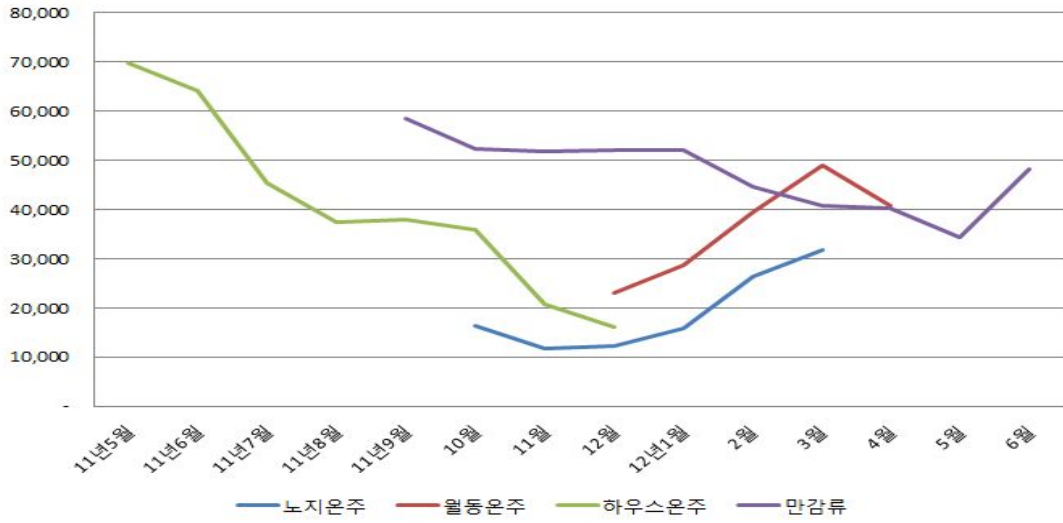
| 구분 | 노지온주 | 월동온주 | 하우스온주 | 만감류 |
|---------|--------|--------|--------|--------|
| 11년 5월 | - | - | 69,886 | - |
| 11년 6월 | - | - | 64,086 | - |
| 11년 7월 | - | - | 45,398 | - |
| 11년 8월 | - | - | 37,446 | - |
| 11년 9월 | - | - | 38,016 | 58,382 |
| 11년 10월 | 16,281 | - | 35,868 | 52,363 |
| 11년 11월 | 11,817 | - | 20,662 | 51,831 |
| 11년 12월 | 12,285 | 23,046 | 16,000 | 52,060 |
| 12년 1월 | 15,814 | 28,636 | - | 52,127 |
| 12년 2월 | 26,411 | 39,514 | - | 44,646 |
| 12년 3월 | 31,713 | 48,918 | - | 40,740 |
| 12년 4월 | - | 40,828 | - | 40,318 |
| 12년 5월 | - | - | - | 34,439 |
| 12년 6월 | - | - | - | 48,141 |

주) 하우스온주, 월동온주, 만감류는 10kg으로 환산하여 산출했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2011.

이와 같은 가격구조가 악순환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귤유통명령제, 감귤원 폐원, 1/2 간벌 등 출하량 조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 효과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1> 감귤품종별 월별 가격 추이



주) 하우스온주, 월동온주, 만감류는 10kg으로 환산하여 산출했음.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2011.

Ⅲ. 한·미 FTA와 오렌지 수입

1. 한·미 FTA의 농업분야 분석

한·미 FTA는 2010년 12월에 협상 타결되었으며 2011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2012년 3월 15일 협정이 발효되었다. 농업분과의 협상대상 품목 수는 1,531개이며,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대부분 단기에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민감품목은 관세철폐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설정되었다.¹⁾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계절관세, 저율관세쿼터(TRQ) 제공,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적용 등 국내 생산농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저율관세쿼터(TRQ)와 농산물 세이프가드(ASG)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RQ제도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설정된 쿼터수량(이것을 TRQ 물량이라고 한다)이내일 경우 낮은 쿼터내세율(in-quota tariff)이 적용되고 그를 초과한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쿼터밖세율(out-quota tariff 또는 over-quota tariff)이 적용되는 이중 관세구조가 TRQ이다. 일반쿼터제도(수량제한제도)에 비해 보다 무역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 쿼터제도 아래서는 설정된 쿼터를 초과한 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TRQ제도 아래서는 설정된 쿼터를 초과한 수입에 비록 높은 쿼터밖세율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로 해서 TRQ제도는 이론상 일반 쿼터제도보다 무역제한 효과가 적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쿼터밖세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정상적인 시장조건 아래서 수입이 불가능하면, TRQ제도는 사실상 수량을 제한하는 일반 쿼터제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게 된다.²⁾

농산물 세이프가드³⁾(ASG)는 농산물 수입의 예상하지 못한 급증으로 인해 수입국과 농산물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입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경

1) 감귤의 관세철폐 기간은 15년이다.

2) 서진교(2004)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p18.

3) 세이프가드(safeguards, 긴급수입제한조치)는 특정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함으로써 동종 혹은 직접 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에 그 물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구제조치이다.

우, 해당 농산물의 수입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후적인 무역구제조치의 하나이며, WTO 규범체계에서도 일반적인 세이프가드와 별도로 농업협정(WTO : Agriculture Agreement)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농산물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일반 상품에 적용되는 일반 세이프가드와는 달리 일정한 발동요건만 충족되면 상대국과의 협의나 피해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WTO 농업협정 제5조는, 농업분야에서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Special Safeguards, SSG)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하였다. WTO 농업협정 제5조는 본 협정의 기본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로 간주되며, 본조에 명시된 상황에 대해서만 그 적용가능성을 열더두고 있다. 또한 본조에 따른 조치를 특별 관세부과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량제한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WTO 농업협정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수입량이 과거 3년간 평균수입량의 일정비율(해당품목의 시장접근 기회의 따라서 100% 내지 125% 수준을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 실행관세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부과할 수 있다. 둘째, 수입가격이 1986~1988년의 평균국내가격보다 10% 이상 인하될 경우 가격차의 일정비율을 추가적인 관세로 부과할 수 있다.¹⁾

<그림 III-1>은 한·미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쌀은 협상 시작 시 양허제의 품목으로 지정했다. 감귤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렌지의 계절관세는 9월부터 2월까지 현행 계절관세를 유지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초기 년도에 50%, 이듬해부터는 30%로 인하하여 7년 간 철폐해 나가는 형태이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냉동)의 경우 54%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포도의 관세 철폐도 계절관세 형태며,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17년간 관세를 철폐하고, 10월16일부터 4월까지 현재 45%의 관세를 24%에서 시작해서 5년간 철폐한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사과 품종인 후지사과의 관세철폐 기간은 20년, 기타 품종의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된다.

배는 사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방하고 동양배의 관세철폐는 20년, 기타 품종

1) 김동훈·김봉철·박찬호(2008) 「FTA 세이프가드 규정에 관한 연구」, p97.

의 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며 ASG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숭아와 단감의 관세 철폐 기간은 10년, 키위는 15년 체리의 관세는 이행하는 초기년도에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¹⁾

<그림 III-1>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 양허 유형 | 주요 품목 |
|--------------|---|
| 양허제외 | 쌀 |
| 현행 관세, 수입쿼타 | 오렌지(성출하기), 식용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
| 계절 관세 | 포도, 칩용 감자 |
| 세번 분리, 장기 철폐 | 사과, 배 |
| 장기 철폐, 세이프가드 | 쇠고기, 돼지고기(냉장), 고추, 마늘, 인삼, 보리, 맥주맥·맥아, 전분 |
| 15년 | 호두(미탈각), 밤, 잣,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
| 12년 |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
| 10년 |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
| 9년 | 딸기 |
| 7년 | 맥주, 아이스크림, 살구, 팝콘용 옥수수 |
| 2014.1.1 철폐 | 돼지고기 |
| 6년 | 옥수수유, 호두(탈각) |
| 5년 | 완두콩, 감자(냉동),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기타), 위스키, 브랜디 |
| 3년 | 해조류 |
| 2년 | 아보카도, 레몬 |
| 즉시 철폐 | 오렌지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

자료) 외교통상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2011.

1) 임보광(200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p38.

<표 III-1>는 농림축산물 수입현황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농산물은 전년대비 1.9% 증가한 18,717백만 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과실류의 경우 오렌지, 버찌, 레몬, 망고, 크랜베리 등의 수입량 16.4%로 증가하였으며 곡류의 경우는 수입량이 8.6%증가하였다. 채소류의 경우는 배추, 마늘 등의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1.9%로 수입량이 감소하였다. 축산물은 전년대비 6.9%로 감소한 4,720백만 불을 수입하였으며 임산물은 전년대비 8.1%로 증가한 6,009 백만 불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 농림축산물 수입 현황

(단위 : 천톤, 백만불, %)

| 구 분 | 2010년산 | 2011년산 | | 2012년산 | | 증감률 (B/A) |
|-----|----------|----------|----------|----------|----------|--------------|
| | 금액 | 물량 | 금액(A) | 물량 | 금액(B) | |
| 합 계 | 25,787.2 | 47,529.4 | 33,184.0 | 51,365.8 | 33,422.4 | 0.7 |
| 농산물 | 13,987.8 | 28,924.9 | 18,632.0 | 31,590.8 | 18,717.1 | 1.9 |
| 축산물 | 3,123.0 | 1,416.8 | 5,071.4 | 1,286.2 | 4,720.5 | △6.9 |
| 임산물 | 5,219.1 | 12,342.3 | 5,560.7 | 13,659.5 | 6,009.5 | 8.1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2.

<표 III-2>는 국내로 수입되는 과실류의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오렌지는 주로 미국, 브라질 등에서 수입되며 호주, 그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2.8% 증가한 290.3백만 불이며 바나나는 주로 필리핀에서 수입되고 있으나 '12년 페루, 과테말라, 스리랑카에서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8% 증가한 249.9백만 불 수입되고 있다. 포도는 주로 칠레, 미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페루, 이탈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18.8% 증가한 195.5백만 불이다. 버찌는 미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관세철폐로 인해 전년대비 65.1%로 증가한 87.3백만 불이다. 파인애플은 주로 필리핀, 태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미국, 이탈리아에서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3.2% 증가한 75.5백만 불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2> 과실류 수입현황

(단위 : 톤, 천불)

| 구 분 | 2010년산 | 2011년산 | | 2012년산 | | 증감률(%) | |
|------|---------|---------|-----------|-----------|-----------|--------|------|
|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합 계 | 945,132 | 923,158 | 1,213,172 | 1,009,923 | 1,412,386 | 9.4 | 16.4 |
| 오렌지 | 174,088 | 168,633 | 236,422 | 199,513 | 290,250 | 18.3 | 22.8 |
| 바나나 | 210,355 | 352,671 | 245,522 | 367,960 | 249,921 | 4.3 | 1.8 |
| 포도 | 123,133 | 66,274 | 164,610 | 76,159 | 195,483 | 14.9 | 18.8 |
| 버찌 | 36,909 | 6,454 | 52,920 | 10,848 | 87,371 | 68.1 | 65.1 |
| 파인애플 | 58,273 | 89,417 | 73,318 | 89,497 | 75,695 | 0.1 | 3.2 |
| 키위 | 56,508 | 29,757 | 72,450 | 28,945 | 66,977 | △2.7 | △7.6 |
| 사과 | 12,303 | 9,221 | 16,375 | 10,948 | 21,849 | 18.7 | 33.4 |
| 레몬 | 10,002 | 8,716 | 13,349 | 12,375 | 20,540 | 42.0 | 53.9 |
| 기타 | 263,581 | 192,015 | 338,206 | 213,678 | 404,300 | 11.3 | 19.5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2.

<표 III-3>는 미국산 수입 농축산물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농산물 수입 전체 물량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0,280,314톤이며 2012년산 수입 농산물은 7,967,868톤으로 약 22.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수입량은 전년대비 59%로 감소한 반면 밀 수입량은 전년대비 8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비패턴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과실류는 모든 품목이 전년대비 수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렌지는 2011년산 수입량은 141,231톤이며 2012년산 수입량은 176,518톤으로 25.0%로 증가하였다. 기타과실의 전년대비 수입량은 17.9%로 증가하였으며 버찌의 전년대

1)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2년도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p210.

비 수입량은 80.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버찌(체리)의 수입량 증가는 수입관세(24%)가 철폐와 산지 작황호조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젊은층 소비자들이 수요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포도의 전년대비 수입량은 11.0%로 증가하였다.

축산물의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 수입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관세 인하 폭이 낮고 광우병 발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 및 국내 축산물 공급증가로 분석된다.

<표 III-3> 미국산 주요 농축산물 수입 현황

(단위 : 톤, 천불, %)

| 구 분 | | 2010년산 | 2011년산 | | 2012년산 | |
|--------|------|-----------|------------|-----------|-----------|-----------|
| |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전체 농산물 | | 4,333,277 | 10,280,314 | 5,245,485 | 7,967,868 | 4,330,170 |
| 곡물류 | 옥수수 | 1,684,067 | 6,024,148 | 1,936,704 | 2,836,230 | 930,962 |
| | 밀 | 376,709 | 1,281,130 | 507,022 | 2,400,805 | 764,487 |
| | 대두 | 355,775 | 556,275 | 326,010 | 496,365 | 310,348 |
| | 쌀 | 78,413 | 155,159 | 125,429 | 64,220 | 47,703 |
| 과실류 | 오렌지 | 137,355 | 141,231 | 178,365 | 176,518 | 240,726 |
| | 기타과실 | 57,914 | 16,941 | 66,398 | 19,966 | 86,146 |
| | 버찌 | 33,278 | 5,651 | 48,497 | 10,210 | 83,953 |
| | 포도 | 33,471 | 15,572 | 38,105 | 17,284 | 45,216 |
| 축산물 | 쇠고기 | 421,606 | 128,455 | 653,030 | 105,792 | 522,456 |
| | 돼지고기 | 184,033 | 164,716 | 509,906 | 131,342 | 391,308 |
| | 치즈 | 75,935 | 32,472 | 140,233 | 31,877 | 140,596 |
| | 닭고기 | 69,539 | 86,620 | 127,673 | 54,479 | 90,762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2.

2. 오렌지 수입가격 동향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2012년 미국산 신선 오렌지의 수입량은 166.9천 톤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FTA 발효 이후 세 달 동안 미국으로부터 10만 9천여 톤의 오렌지가 수입되어 전년 동기 대비 24%의 물량이 증가하였다. <표 III-4>는 연도별 오렌지 수입량, 수입액, 수입단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4> 연도별 오렌지 수입량 및 수입단가

(단위 : 톤, 1,000USD, USD)

| 기간 | 수입증량 | 수입액 | 수입단가 |
|------|---------|-----------|------|
| 2005 | 116,993 | 115,006 | 0.98 |
| 2006 | 118,211 | 116,611 | 0.99 |
| 2007 | 71,498 | 100,990 | 1.41 |
| 2008 | 101,284 | 103,630 | 1.02 |
| 2009 | 65,581 | 73,154 | 1.12 |
| 2010 | 104,909 | 124,568 | 1.19 |
| 2011 | 135,931 | 161,850 | 1.19 |
| 2012 | 166,931 | 210,773 | 1.26 |
| 계 | 881,097 | 1,006,582 | 1.14 |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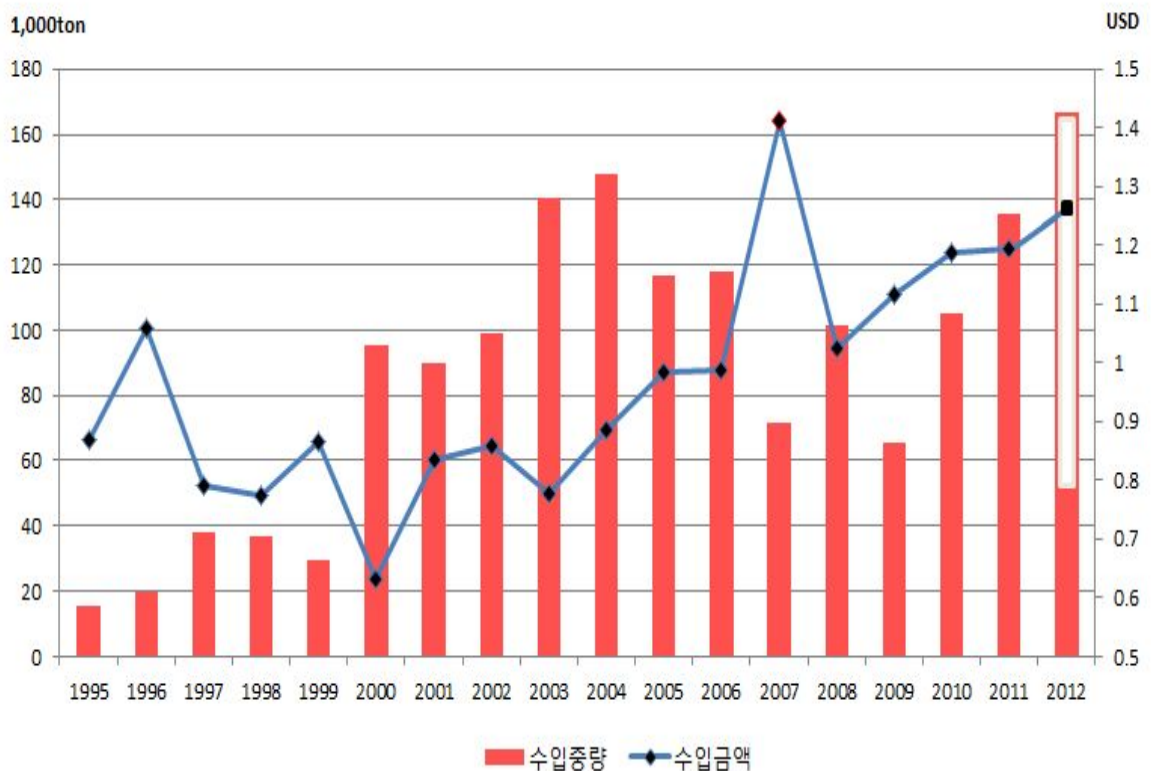
2010년 이래로 미국산 신선 오렌지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수입단가 역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오렌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량 증가는 국내 오렌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원인은 오렌지 등 과일류 대미수입 업체들이 증가(2011년 60여개 → 2012년 90여개) 하면서 도소매점 및 대형유통업체로의 납품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의 생산량 감소와 고전된 오렌지 수출업체 수에 비해 한국에서의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현지의 수출단가가 FTA 발효 이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수입 과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1)

미국산 신선 오렌지는 3월 이후 수입쿼터제의 범위에서 벗어나 관세가 30%만 적용되어 수입되었다. 관세가 50%에서 30%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발효 전보다 높은 단가에 수입되었다. 수입액은 전년대비 30% 늘어났으며 수입단가는 5.9% 상승한 1.26USD이다.

<그림 III-2> 연도별 미국산 오렌지(신선)의 수입량과 수입단가 추이



주) 2012년 총 수입량임. 2012년 수입량 막대의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115천톤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량을 나타냄.

자료) 관세청 (1995~2012년 수입통계)

1) 문한필·이현근·박한울(2013) 「한·미 FTA 오렌지 관세인하가 국내 주요 과일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오렌지 주스이 수입량은 전년대비 19.6%로 감소하였으며 단가는 3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입량은 최근 3년간 10.7%증가했으며 단가는 최근 3년간 35.8%상승하였다. 브라질산이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브라질산 비중은 2.2%p 감소하고 미국산이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표 III-5> 오렌지주스 수입 현황

| 구분 | 수입량 (톤) | 단가 (\$/kg) | 상위국(수입량 기준) | | | | | |
|-----------|------------|---------------|-------------|-------|-----|-------|------|-------|
| | | | 국가명 | 비중(%) | 국가명 | 비중(%) | 국가명 | 비중(%) |
| '09 | 24,100 | 1.83 | 브라질 | 57.5 | 미국 | 21.5 | 이스라엘 | 17.4 |
| '10 | 26,547 | 1.63 | 브라질 | 72.3 | 미국 | 19.5 | 이스라엘 | 3.1 |
| '11 | 26,671 | 2.48 | 브라질 | 65.5 | 미국 | 20.8 | 이스라엘 | 8.1 |
| '11.01~07 | 18,879 | 2.38 | 브라질 | 67.2 | 미국 | 18.9 | 이스라엘 | 8.8 |
| '12.01~07 | 15,187 | 2.70 | 브라질 | 65.0 | 미국 | 21.1 | 이스라엘 | 6.1 |

자료) 관세청, 2012.

3. 오렌지 수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농산물 생산액은 FTA 발효 후 5년차에 4,465억 원, 10년차에 8,958억 원, 15년차에 1조 36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FTA 형상 결과가 이행될 경우 <표 III-6>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분석 대상품목의 총수입액은 2013년 70억 4천만 달러, 2018년 83억 1천만 달러, 2023년 88억 2천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미국산의 비중은 각각 39.1%, 42.2%, 44.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한·미 FTA에 따른 수입선 전환 효과 및 무역창출 효과로 대미 수입증가액은 15년간 55억 5,600만 달러, 연평균 3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된다.²⁾

1) 관세청 (2012) 『주스류(과일·채소) 수입 동향』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한·미 FTA 영향 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p42

<표 III-6>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단위 : 억원)

| 구 분 | | 연간 | | | 평균 | | |
|-----------|------|-------|-------|--------|-------|-------|--------|
| | | 5년차 | 10년차 | 15년차 | 1~5년 | 6~10년 | 11~15년 |
| 곡물 | 보리 | 5 | 14 | 32 | 3 | 10 | 23 |
| | 두류 | 17 | 86 | 154 | 10 | 59 | 130 |
| | 기타 | 24 | 53 | 53 | 15 | 41 | 53 |
| | 소계 | 46 | 153 | 240 | 28 | 111 | 206 |
| 채소, 특작 | 마늘 | 29 | 39 | 49 | 22 | 34 | 47 |
| | 양파 | 31 | 63 | 96 | 16 | 48 | 82 |
| | 고추 | 17 | 39 | 72 | 9 | 28 | 59 |
| | 과채류 | 153 | 240 | 240 | 89 | 221 | 240 |
| | 인삼 | 34 | 39 | 43 | 32 | 37 | 42 |
| | 기타 | 38 | 38 | 38 | 23 | 38 | 38 |
| | 소계 | 301 | 457 | 538 | 191 | 407 | 507 |
| 과수 | 사과 | 202 | 416 | 778 | 159 | 304 | 643 |
| | 배 | 50 | 153 | 325 | 27 | 105 | 251 |
| | 포도 | 176 | 462 | 764 | 94 | 345 | 645 |
| | 감귤 | 457 | 658 | 658 | 275 | 635 | 658 |
| | 복숭아 | 82 | 197 | 197 | 54 | 146 | 197 |
| | 기타 | 26 | 48 | 65 | 16 | 39 | 58 |
| | 소계 | 993 | 1,933 | 2,787 | 625 | 1,575 | 2,452 |
| 축산 | 쇠고기 | 671 | 2,811 | 3,147 | 365 | 2,009 | 3,058 |
| | 돼지고기 | 1,464 | 1,874 | 1,874 | 876 | 1,829 | 1,874 |
| | 닭고기 | 488 | 996 | 996 | 302 | 823 | 996 |
| | 유제품 | 416 | 594 | 594 | 378 | 539 | 594 |
| | 기타 | 85 | 141 | 186 | 60 | 119 | 169 |
| | 소계 | 3,124 | 6,415 | 6,797 | 1,981 | 5,319 | 6,691 |
| 총계 | | 4,465 | 8,958 | 10,361 | 2,825 | 7,412 | 9,856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주 1) 한·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

2) 이행기간이 15년 이전에 완료되는 품목은 15년까지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3) 보리는 수매정책이 유진된다고 가정.

4) 식용대부 TRQ 물량의 대부분은 실수요자에 배정하는 것을 전제.

5) 검역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6) 감귤에는 한라봉 등 시설재배 감귤 포함.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어 제주감귤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미국산 신선 오렌지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며 저렴한 가격의 오렌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III-7>은 미국산 신선 오렌지의 월별 수입량과 수입단가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계절관세가 50%에서 30%로 20P% 낮아지는 3월부터 급격하게 수입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단가가 높아지는 8월부터 10까지는 수입이 거의 되지 않는다. 11월부터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점차 수입량이 늘어나며 2월까지 노지감귤출하가 마무리되고 계절관세(50%→30%)의 낮은 적용에 힘입어 미국산 신선 오렌지의 수입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입물량의 대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2012년에는 수입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단가 역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7> 월별 미국산 오렌지(신선)의 수입량과 수입단가

(단위 : 톤, 천불(USD1,000), USD, 원)

| 구분 | 수입중량 | 수입금액 | 수입단가 | 10kg당 가격 |
|---------|---------|---------|------|----------|
| 11년 9월 | 214 | 233 | 1.09 | 12,392 |
| 11년 10월 | 302 | 324 | 1.07 | 12,613 |
| 11년 11월 | 144 | 222 | 1.54 | 17,762 |
| 11년 12월 | 2,022 | 2,813 | 1.39 | 16,243 |
| 12년 1월 | 6,876 | 8,874 | 1.29 | 15,047 |
| 12년 2월 | 27,475 | 33,195 | 1.21 | 13,810 |
| 12년 3월 | 55,699 | 68,605 | 1.23 | 14,111 |
| 12년 4월 | 50,669 | 65,907 | 1.30 | 15,029 |
| 12년 5월 | 16,245 | 21,588 | 1.33 | 15,607 |
| 12년 6월 | 3,488 | 4,134 | 1.19 | 14,055 |
| 합계 | 163,134 | 205,894 | 1.26 | 14,667 |

주) 미국산 신선 오렌지의 계절관세는 9/1~2/28은 50%, 3/1~8/31은 30% 적용.

자료) 관세청.

1월~7월까지 본격적으로 수입되며 이때는 관세가 50% → 30%로 20P% 낮은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이시기는 노지온주, 월동온주, 만감류 출하시기와 겹친다. 9월~2월말까지 수입되는 오렌지는 계절관세 50% 적용으로 가격경쟁력이 낮다고 보지만 3월부터 수입되는 오렌지는 가격 경쟁력이 높아 월동온주 및 만감류의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지감귤의 경우 가격 탄력적이다. 만감류의 경우는 2월부터 5월까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오렌지의 경우 공급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다.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으로 수입되는 1월~7월까지 관세가 50% → 30%로 20P% 낮아지며 이시기에 오렌지 수입량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월별 노지감귤·만감류 및 오렌지 가격

(단위 : 원)

| 구분 | 노지감귤 | 만감류 | 오렌지 |
|---------|--------|--------|--------|
| 11년 9월 | 35,948 | 58,382 | 12,392 |
| 11년 10월 | 16,378 | 52,363 | 12,613 |
| 11년 11월 | 11,874 | 51,831 | 17,762 |
| 11년 12월 | 12,606 | 52,060 | 16,243 |
| 12년 1월 | 18,649 | 52,127 | 15,047 |
| 12년 2월 | 35,313 | 44,646 | 13,810 |
| 12년 3월 | 46,980 | 40,740 | 14,111 |
| 12년 4월 | 43,459 | 40,318 | 15,029 |
| 12년 5월 | 35,536 | 34,439 | 15,607 |
| 12년 6월 | 61,514 | 48,141 | 14,055 |

주) 노지감귤·만감류 및 오렌지 가격은 10kg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음.

미국산 오렌지의 관세인하는 감귤가격을 10.4% 하락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

오렌지 수입시기에 출하하는 만감류를 재배하는 과수농가는 작황 부진으로 인한 공급 물량 감소를 가격인상으로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면서 조수입이 감소했다. 즉, 공급 감소로 인한 감귤가격의 상승추세는 오렌지 관세인하로 일정부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렌지 수입관세 인하로 인한 가시적인 과수농가의 피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에서 2~5월에 출하되는 감귤류를 생산하는 농가는 간접적인 수입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¹⁾

<표 III-9>는 감귤 수급 전망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표 III-9> 감귤 수급 전망

| 구분 | 단위 | 2012 | 전 망 | | |
|---------|-------|------|------|------|------|
| | | | 2013 | 2017 | 2022 |
| 재배면적 | 천 ha | 21.4 | 21.3 | 21.5 | 20.9 |
| 성목면적 | 천 ha | 20.2 | 20.1 | 20.5 | 20.2 |
| 유목면적 | 천 ha | 1.2 | 1.2 | 1.1 | 0.7 |
| 생산량 | 천 ton | 700 | 669 | 700 | 713 |
| 수출량 | 천 ton | 5 | 4 | 4 | 4 |
| 오렌지 수입량 | 천 ton | 216 | 243 | 287 | 319 |
| 1인당 소비량 | kg | 13.9 | 13.9 | 13.7 | 13.7 |

자료)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감귤재배면적은 2017년에 2만 2천 ha로 늘다가 이후 줄어들어 2022년에 2만 1천 ha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감소하지만 재배기술 향상에 따른 단수 증가로 생산량은 2022년 71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오렌지 수입량(신선·건조, 냉동·냉장, 기타)은 2013년 24만 톤에서 2022년 32만 톤으로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문한필·이현근·박한울(2013) 「한·미 FTA 오렌지 관세인하가 국내 주요 과일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IV. 감귤농가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감귤재배유형별 농가의 경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제주지역 감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감귤재배농가 104호의 표본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Windows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감귤재배를 위한 노동투입량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영농형태, 재배면적, 재배형태로 농가유형을 구분하여 각 유형별 가족노동력 투입과 고용노동력 투입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가의 재배형태, 영농형태, 영농경력으로 구분하여 농가소득, 재배면적, 감귤재배 여건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농가유형별 경영특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ANOVA분석, 교차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일반 현황

<표 IV-1>은 조사농가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이 89.4%(93명), 여성이 10.6%(11명)로 조사대상 농가 대부분의 경영주는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의 연령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 설문한 결과 30대 7.7%(8명), 40대 30.8(32명), 50대 35.6%(37명) 그리고 60대 이상이 26%(27명)으로 조사되었다. 40~5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30대의 경우는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의 26%로 비중은 높은 수준에 있다. 이는 감귤재배 인력의 고령화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대상 경영주의 학력분포는 초졸 6.7%(7명), 중졸 9.6%(10명), 고졸 47.1%(49명), 대졸 28.8%(30명), 대졸이상 7.7%(8명)가 나타나고 있다. 고졸이상 학력은 83.6%로 전국농가의 고졸이상 학력 34.4%에 비해 감귤재배 경영주의 교

육 수준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 경영주 일반 현황

(단위 : 명, %)

| | 구분 | 빈도 | 비율 |
|------|-------------|-----|------|
| 성별 | 남자 | 93 | 89.4 |
| | 여자 | 11 | 10.6 |
| | 합계 | 104 | 100 |
| 연령 | 30대 | 8 | 7.7 |
| | 40대 | 32 | 30.8 |
| | 50대 | 37 | 35.6 |
| | 60대 이상 | 27 | 26.0 |
| | 합계 | 104 | 100 |
| 학력 | 초졸 | 7 | 6.7 |
| | 중졸 | 10 | 9.6 |
| | 고졸 | 49 | 47.1 |
| | 대졸 | 30 | 28.8 |
| | 대졸이상 | 8 | 7.7 |
| | 합계 | 104 | 100 |
| 영농경력 | 10년미만 | 12 | 11.5 |
| | 10년이상~20년미만 | 23 | 22.1 |
| | 20년이상~30년미만 | 32 | 30.8 |
| | 30년이상~40년미만 | 23 | 22.1 |
| | 40년이상 | 14 | 13.5 |
| | 합계 | 104 | 100 |

조사대상 경영주의 영농경력은 20년 이상~30년 미만 구간이 32명(30.8%)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미만 감귤농사에 종사한 경우가 12명(11.5%)으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10년 이상~20년 미만이 23명(22.1%), 30년 이상~40년 미만의 구간이 23명(22.1%), 40년 이상 감귤농사에 종사한 경우는 14명(13.5%)로 조사되었다. 경영주의 평균 영농경력은 23.7년으로 분석되었다. 감귤재배 경력은 구간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귀농 인구의 증가와 30대에 처음 감귤농사를 시작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40년 이상 고령 경영주들이 계속 농사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 농가경영 현황

조사대상 농가의 영농형태는 전업농은 73.1%, 겸업농은 26.9%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는 영농형태 감귤재배면적을 보면 전업농의 경우 재배면적 0.5~1ha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2~2.5ha가 1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겸업농의 경우 2ha미만의 감귤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며 전업농의 경우에는 2ha이상 재배면적이 25.9%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업농의 경우 겸업농에 비해 넓은 감귤재배면적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 농가의 영농형태

(단위 : 명, %)

| 구분 | | 빈도 | 비율 |
|------|-----|-----|------|
| 영농형태 | 전업농 | 76 | 73.1 |
| | 겸업농 | 28 | 26.9 |
| | 합계 | 104 | 100 |

전업농의 경우 0.5~1ha미만 재배면적에서 감귤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25호(2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2.5ha미만 재배면적은 19호, 1.5~2ha미만 재배면적은 10호이며 3ha이상 면적에서 감귤재배를 하는 농가도 4호로 조사되었다. 겸업농의 경우는 2ha 이상에서 감귤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없었으며 1~1.5ha에서 감귤재배를 하는 농가는 16호이다.

<표 IV-3> 영농형태별 감귤재배면적 현황

(단위 : 호, %)

| 구분 | 전업농 | | 겸업농 | | 계 | |
|------------|-----|------|-----|------|-----|------|
| | 호 | 비율 | 호 | 비율 | 호 | 비율 |
| 0.5ha 미만 | 7 | 9.2 | 4 | 14.3 | 11 | 10.6 |
| 0.5~1ha 미만 | 25 | 32.9 | 4 | 14.3 | 29 | 27.9 |
| 1~1.5ha 미만 | 7 | 9.2 | 16 | 57.1 | 23 | 22.1 |
| 1.5~2ha 미만 | 10 | 13.2 | 4 | 14.3 | 14 | 13.5 |
| 2~2.5ha 미만 | 19 | 25.0 | - | | 19 | 18.3 |
| 2.5~3ha 미만 | 4 | 5.3 | - | | 4 | 3.8 |
| 3ha 이상 | 4 | 5.3 | - | | 4 | 3.8 |
| 합계 | 76 | 100 | 28 | 100 | 104 | 100 |

가족구성원 중 감귤재배에 참여하는 노동력 투입량을 조사한 결과 ‘1명’이 47호(45.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원’이 29호(24.9%)로 조사되었다. 가족구성원 중 전원이 참여한다는 농가의 수가 많은 이유는 고령 농가의 경우 자식들의 분가로 인해 부부만 남아 농사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표 IV-4> 감귤재배에 투입되는 가족노동 인원

(단위 :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
| 없다 | 4 | 3.8 |
| 전원 | 29 | 24.9 |
| 1명 | 47 | 45.2 |
| 2명 | 20 | 19.2 |
| 3명 | 4 | 3.8 |
| 합계 | 104 | 100 |

주) 경영주를 제외한 가족노동력임.

감귤농가의 일주일간 감귤재배를 위해 투입하는 가족노동력은 ‘일주일에 3일’을 일한다고 대답한 농가는 24호(23.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일주일에 4일’ 18호(17.3%), ‘일주일에 6일’ 16호(15.4%), ‘일주일에 7일’ 10호(9.6%)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주일에 하루만 감귤재배를 위해 일을 한다고 대답한 농가는 12호(11.5)호로 조사되었다.

<표 IV-5> 감귤재배에 투입 가족노동력

(단위 : 명, %)

| 구분 | | 빈도 | 비율 |
|-------|-----|-----|------|
| 가족노동력 | 1일 | 12 | 11.5 |
| | 2일 | 4 | 3.8 |
| | 3일 | 24 | 23.1 |
| | 4일 | 18 | 17.3 |
| | 5일 | 8 | 7.7 |
| | 6일 | 16 | 15.4 |
| | 7일 | 10 | 9.6 |
| | 기타 | 8 | 7.7 |
| | 무응답 | 4 | 3.8 |
| | 합계 | 104 | 100 |

주) 일주일동안 감귤재배를 위해 투입되는 가족노동력임.

감귤재배를 위해 연간 고용노동력은 20~30명을 고용한다는 농가는 24호로 가장 많고 조사되었으며 90~100명을 고용한다는 농가도 21명으로 조사되었다. 고용노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농가는 4호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고용노동력을 통해 감귤재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 수확기에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감귤재배를 위한 고용노동력

(단위 : 명, %)

| 구분 | 빈도 | 비율 |
|-----------|-----|------|
| 없다 | 4 | 3.8 |
| 10명 | 11 | 10.6 |
| 10~20명 | 4 | 3.8 |
| 20~30명 | 24 | 23.1 |
| 40~50명 | 12 | 11.5 |
| 50~60명 | 8 | 7.7 |
| 60~70명 | 8 | 7.7 |
| 80~90명 | 12 | 11.5 |
| 900~1000명 | 21 | 20.2 |
| 합계 | 104 | 100 |

조사 농가의 감귤재배형태를 보면 노지재배를 하는 농가는 42호(40.4%), 시설재배는 27호(26.0%), 노지 및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는 35호(33.7)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재배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노지재배만 하던 농가들이 시설재배로 전환과 노지 및 시설재배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7> 농가의 감귤재배형태

(단위 : 호, %)

| 구분 | 빈도 | 비율 |
|-----------|-----|------|
| 노지재배 | 42 | 40.4 |
| 시설재배 | 27 | 26.0 |
| 노지 및 시설재배 | 35 | 33.7 |
| 합계 | 104 | 100 |

조사대상 농가 중 소유지 없이 임차지에서 감귤재배를 하는 농가는 9.6%(10호)로 나타나고 있으며 94농가는 자가 소유지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다. 또한 자가 소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를 임차해서 감귤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19농가로 조사대상 농가 중 18.3%를 차지하고 있다. 소유지 재배면적은 0.5~3ha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반면 임차지 면적은 0.5ha 미만이 55.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8> 소유지와 임차지 보유 현황

(단위 : 호, %)

| 구분 | | 빈도 | 비율 |
|-----|----------|-----|------|
| 소유지 | 없음 | 10 | 9.6 |
| | 0.5ha 미만 | 11 | 10.6 |
| | 0.5~1ha | 23 | 22.1 |
| | 1~1.5ha | 26 | 25.0 |
| | 1.5~2ha | 17 | 16.3 |
| | 2~2.5ha | 16 | 15.4 |
| | 2.5~3ha | 1 | 1.0 |
| | 3ha 이상 | - | - |
| | 합계 | 104 | 100 |
| 임차지 | 0.5ha 미만 | 16 | 55.2 |
| | 0.5~1ha | - | |
| | 1~1.5ha | 8 | 27.6 |
| | 1.5~2ha | 5 | 17.2 |
| | 2~2.5ha | - | |
| | 2.5~3ha | - | |
| | 3ha 이상 | - | |
| | 합계 | 29 | 100 |

농가의 감귤판매 선호처를 분석한 결과 1순위는 농·감협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도매인이 26.0%로이다. 2순위는 중도매인이 5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감협이 18.3%로이다.

<표 IV-9> 감귤판매처별 판매 선호도

(단위 : 호, %)

| 구분 | 1순위 | | 2위 | |
|-------|-----|------|-----|------|
| | 빈도 | 비율 | 빈도 | 비율 |
| 중도매인 | 27 | 26.0 | 61 | 58.7 |
| 농·감협 | 69 | 66.3 | 19 | 18.3 |
| 전자상거래 | 8 | 7.7 | 16 | 15.4 |
| 자가소비 | - | - | 4 | 3.8 |
| 결측값 | - | - | 4 | 3.8 |
| 합계 | 104 | 100 | 104 | 100 |

감귤판매처 선호 이유를 보면 안전성이 58.7%로 가장 높으며 단골 거래처가 19.2%, 적절한 가격이 14.4%로 나타났다. 농·감협 및 중도매인을 통해 감귤을 판매하는 이유는 안전성이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되었다.

<표 IV-10> 판매처 선호 이유

(단위 : 호, %)

| 구분 | 빈도 | 비율 |
|--------|-----|------|
| 적절한 가격 | 15 | 14.4 |
| 단골 거래처 | 20 | 19.2 |
| 안전성 | 61 | 58.7 |
| 계약재배 | 4 | 3.8 |
| 기타 | 4 | 3.8 |
| 합계 | 104 | 100 |

농가의 자금사정을 분석한 결과 보통이 73농가(70.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쁘다'는 16호(15.4%)로 나타났으며 '매우 나쁘다'는 4호(3.8)로 나타났다.

<표 IV-11> 농가의 자금사정

(단위 : 호, %)

| 구분 | 빈도 | 비율 |
|--------|-----|------|
| 좋다 | 11 | 10.6 |
| 보통 | 73 | 70.2 |
| 나쁘다 | 16 | 15.4 |
| 매우 나쁘다 | 4 | 3.8 |
| 합계 | 104 | 100 |

농가의 자금사정이 나쁜 이유로는 인건비 상승이 40.0%로 가장 높았으며 조수입 감소 및 농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비 증가로 자금사정이 나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2> 농가의 자금사정이 나쁜 이유

(단위 : 호, %)

| 구분 | 빈도 | 비율 |
|------------------|----|------|
| 감귤가격 하락으로 조수입감소 | 13 | 16.3 |
| 인건비 상승 | 32 | 40.0 |
| 농자재가격상승 | 11 | 13.8 |
| 자녀 교육비 부담 | 8 | 10.0 |
| 차입금 원리금 상환 부담 | 8 | 10.0 |
| 생활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 | 4 | 5.0 |
| 기타 | 4 | 5.0 |
| 합계 | 80 | 100 |

감귤재배를 위한 경영비 절감 방법에 대해 분석할 결과 농약비 및 비료비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는 3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부 지원 사업확대가 26.0%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력지원 및 절전형 보온시설 보급이 각각

15.4%로 나타났다.

<표 IV-13> 경영비 절감방법

(단위 : 호, %)

| 구분 | 빈도 | 비율 |
|---------------|-----|------|
| 농약비, 비료비 지원확대 | 37 | 35.6 |
| 농기계 공동사용 | 4 | 3.8 |
| 관·군에서의 인력지원 | 16 | 15.4 |
| 절전형 보온시설 보급 | 16 | 15.4 |
| 정부지원사업 확대 | 27 | 26.0 |
| 기타 | 4 | 3.8 |
| 합계 | 104 | 100 |

감귤가격하락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오렌지 수입으로 감귤가격이 하락한다고 한 경우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감귤품질저하가 18.3%, 대체과일(딸기, 포도 등)의 연중 출하가 11.5%로 나타나 감귤가격은 내·외부 요인에 의해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14> 감귤가격하락 원인

(단위 : 호, %)

| 구분 | 빈도 | 비율 |
|----------------|-----|------|
| 오렌지 수입 | 58 | 55.8 |
| 대체과일(딸기, 포도 등) | 12 | 11.5 |
| 감귤 과잉생산 | 7 | 6.7 |
| 감귤 품질저하 | 19 | 18.3 |
| 소비자 기호변화 | 8 | 7.7 |
| 합계 | 104 | 100 |

수입오렌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분석한 결과 고품질화가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렌지 수입관세 철폐 없이 현행유지가 26.9%로이며 공동출하·공동전상,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이 각각 15.4%로이다. 따라서 수입 오렌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농가의 고품질 감귤생산과 감귤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철폐 없이 현행유지를 해야 할 것이다.

<표 IV-15> 오렌지수입 대응 방안

(단위 : 호, %)

| 구분 | 빈도 | 비율 |
|---------------------|-----|------|
| 고품질화 | 38 | 36.5 |
| 적정생산 | 4 | 3.8 |
| 공동출하, 공동전상 | 16 | 15.4 |
|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 16 | 15.4 |
| 수입 오렌지 관세철폐 없이 현행유지 | 28 | 26.9 |
| 합계 | 104 | 100 |

4. 농가유형별 경영특성 차이

<표 IV-16>은 감귤재배농가 유형별 특성에 따른 가족노동력 투입량을 분석한 결과로 농가유형별에 따른 가족 노동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전업농은 4~5일 36.1%, 6~7일이 36.1%로 높게 나타났으며 겸업농은 3일이하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배면적으로 보면 1ha미만은 3일이하가 60.0%로 가장 높고 1~2ha미만은 3일이하가 32.4%, 6~7일이 27.0%로 나타났다. 2ha이상의 경우 4~5일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배형태별로 보면 노지재배 농가는 3일이하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재배는 3일이하가 44.4%, 6~7일이 40.7%로 높게 나타났다. 노지 및 시설재

배를 같이 하는 농가는 4~5일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7일이 35.5%로 높게 분석되었다.

<표 IV-16> 농가유형별 가족노동력 투입량

(단위 : %)

| 구분 | | 가족노동력 투입량 | | | | 계 | ** |
|------------------|--------------|-----------|----------|----------|---------|----------|----------------------------|
| | | 3일이하 | 4~5일 | 6~7일 | 기타 | | |
| 영 농 형 태 | 전업농 | 20(27.8) | 26(36.1) | 26(36.1) | - | 72(100) | $\chi^2=50.397$ p=0.000 |
| | 겸업농 | 20(71.4) | - | - | 8(28.6) | 28(100) | |
| 재 배 면 적 | 1ha미만 | 24(60.0) | 4(10.0) | 12(30.0) | - | 40(100) | $\chi^2=40.265$ p=0.000 |
| | 1~2ha미만 | 12(32.4) | 7(18.9) | 10(27.0) | 8(21.6) | 37(100) | |
| | 2ha이상 | 4(17.4) | 15(65.2) | (17.4) | - | 23(100) | |
| 재 배 형 태 | 노지재배 | 24(57.1) | 6(14.3) | 4(9.5) | 8(19.0) | 42(100) | $\chi^2=78.732$ p=0.000 |
| | 시설재배 | 12(44.4) | 4(14.8) | 11(40.7) | - | 27(100)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4(12.9) | 16(51.6) | 11(35.5) | - | 35(100) | |
| | 합계 | 40(40.0) | 26(26.0) | 26(26.0) | 8(8.0) | 100(100) | |

농가유형별 고용노동력 투입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영농형태의 경우는 유의확률(P값)이 신뢰수준 $P < 0.05$ 보다 높은 $P = 0.290$ 이므로 집단의 변량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별로 보면 1ha미만은 30명 미만이 71.8%로 가장 높고 1~2ha미만은 30~60명 미만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ha이상은 60~90명 미만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배형태별로 보면 노지재배는 30명 미만이 52.4%로 가장 높고 시설재배도 30명 미만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지 및 시설재배를 같이 하는 경우는 60~90미만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IV-17 > 농가유형별 연간 고용노동력 투입량

(단위 : %)

| 구분 | | 고용노동력 투입량 | | | | 계 | ** |
|------|-----------|-----------|-----------|-----------|----------|----------|------------------------------|
| | | 30명 미만 | 30~60명 미만 | 60~90명 미만 | 90명이상 | | |
| 영농형태 | 전업농 | 27(36.0) | 16(21.3) | 16(21.3) | 16(21.3) | 75(100) | $\chi^2=3.748$ $p=0.290$ |
| | 겸업농 | 16(57.1) | 4(14.3) | 4(14.3) | 4(14.3) | 28(100) | |
| 재배면적 | 1ha 미만 | 28(71.8) | 4(10.3) | - | 7(17.9) | 39(100) | $\chi^2=36.816$ $p=0.000$ |
| | 1~2ha 미만 | 11(29.7) | 12(32.4) | 8(21.6) | 6(16.2) | 37(100) | |
| | 2ha이상 | 4(14.8) | 4(14.8) | 12(44.4) | 7(25.9) | (100) | |
| 재배형태 | 노지재배 | 22(52.4) | 8(19.0) | 4(9.5) | 8(19.0) | 42(100) | $\chi^2=16.099$ $p=0.013$ |
| | 시설재배 | 15(57.7) | 4(15.4) | 4(15.4) | 39(11.5) | 26(100)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6(17.1) | 8(22.9) | 12(34.3) | 9(25.7) | 35(100) | |
| | 합계 | 43(41.7) | 20(19.4) | 20(19.4) | 20(19.4) | 103(100) | |

<표 IV-18>은 감귤재배농가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재배면적의 크기를 나타낸 것 영농경력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영농형태별 재배면적을 분석한 결과 전업농의 경우 1ha미만이 42.1%, 1~2ha미만이 22.4%, 2ha이상이 35.5%로 나타났다. 그리고 겸업농의 경우는 1ha미만이 28.6%, 1~2ha미만이 71.4%, 2ha이상은 없음으로 나타나 전업농에 비해 좁은 규모의 면적에서 감귤재배를 하고 있다.

재배형태별 재배면적을 분석한 결과 노지재배는 1ha 미만이 38.1%, 1~2ha 미만이 57.1%, 2ha 이상이 4.8%이며 시설재배는 1ha 미만이 85.2%, 1~2ha 미만이 14.8%, 2ha이상은 없음으로 나타났고 노지 및 시설재배를 같이하는 경우는 1ha미만이 2.9%, 1~2ha 미만이 25.7%, 2ha이상이 71.4%로 나타났다. 즉 2ha 이상 되면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를 같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V-18> 농가유형별 재배면적 관계

(단위 : %)

| 구분 | | 재배면적 | | | 계 | ** |
|------------------|--------------|----------|----------|----------|----------|----------------------------|
| | | 1ha미만 | 1~2ha미만 | 2ha이상 | | |
| 영 농 형 태 | 전업농 | 32(42.1) | 17(22.4) | 27(35.5) | 76(100) | $\chi^2=24.765$ p=0.000 |
| | 겸업농 | 8(28.6) | 20(71.4) | - | 28(100) | |
| 영 농 경 력 | 20년미만 | 16(44.4) | 13(36.1) | 7(19.4) | 36(100) | - |
| | 20~40년미만 | 20(37.0) | 22(40.7) | 12(22.2) | 54(100) | |
| | 40년이상 | 4(28.6) | 2(14.3) | 8(57.1) | 14(100) | |
| 재 배 형 태 | 노지재배 | 16(38.1) | 24(57.1) | 2(4.8) | 42(100) | $\chi^2=78.732$ p=0.000 |
| | 시설재배 | 23(85.2) | 4(14.8) | - | 27(100)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1(2.9) | 9(25.7) | 25(71.4) | 35(100) | |
| | 합계 | 40(100) | 37(100) | 27(100) | 104(100) | |

감귤재배 농가유형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전업농의 경우 3,000만 원~7,000만 원에서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겸업농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이 71.4%로 높게 나타났다. 영농경력별 소득수준을 보면 20년 미만은 3,000만 원 미만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40년 미만은 3,000~7,000만 원 미만이 7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영농경력 40년 이상의 경우는 7,000만 원 이상이 42.9%로 높게 나타났다. 재배형태별로 소득수준을 보면 노지재배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이 6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재배는 3,000~7,000 만 원 미만이 7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지 및 시설재배를 같이 하는 경우는 7,000만 원 이상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노지재배보다 시설재배를 할 때 소득이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표 IV-19> 농가유형별 소득 관계

(단위 : %)

| 구분 | | 소득 | | | 계 | ** |
|------|-----------|------------|------------------|------------|----------|----------------------------|
| | | 3,000만원 미만 | 3,000~7,000만원 미만 | 7,000만원 이상 | | |
| 영농형태 | 전업농 | 15(19.7) | 44(57.9) | 17(22.4) | 75(100) | $\chi^2=26.028$ p=0.000 |
| | 겸업농 | 20(71.4) | 8(28.6) | - | 28(100) | |
| 영농경력 | 20년 미만 | 16(44.4) | 9(25.0) | 11(30.6) | 36(100) | $\chi^2=32.319$ p=0.000 |
| | 20~40년 미만 | 15(27.8) | 39(72.2) | - | 54(100) | |
| | 40년 이상 | 4(28.6) | 4(28.6) | 6(42.9) | 14(100) | |
| 재배형태 | 노지재배 | 28(66.7) | 14(33.3) | - | 42(100) | $\chi^2=65.882$ p=0.000 |
| | 시설재배 | 4(14.8) | 23(85.2) | - | 27(100)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3(8.6) | 15(42.9) | 17(48.6) | 35(100) | |
| | 합계 | 35 | 52 | 17 | 104(100) | |

감귤재배형태별 감귤재배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표 IV-20>과 같다. 감귤판매망, 전문기관 재배기술지원, 노동력 확보만 유의하였다. 그 외 다른 항목은 유의하지 않았다. 감귤판매망 만족도 조사에서 노지재배(3.00점), 시설재배(3.15점)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반면 노지 및 시설재배(2.69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문기관의 재배기술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노지재배(3.52점)는 만족도가 높게 나온 반면 시설재배(2.85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지 및 시설재배(3.31점)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동력 확보 만족도 조사 결과 노지재배(2.29), 시설재배(3.00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설 및 노지재배의 경우 역시 만족점수 2.63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노지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한 판로확보가 시급하며 시설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되며 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표 IV-20> 재배형태별 감귤재배 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 구분 | | 빈도 | 평균 | 표준편차 | F값 | 유의확률 |
|--------------|-----------|----|------|-------|-------|------|
| 감귤가격 | 노지재배 | 42 | 3.10 | .297 | .587 | .558 |
| | 시설재배 | 27 | 3.00 | .555 |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35 | 3.09 | .284 | | |
| 감귤판매망 | 노지재배 | 42 | 3.00 | .625 | 6.706 | .002 |
| | 시설재배 | 27 | 3.15 | .362 |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35 | 2.69 | .471 | | |
| 재배기술정보 | 노지재배 | 42 | 3.52 | .804 | 1.758 | .178 |
| | 시설재배 | 27 | 3.30 | .465 |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35 | 3.38 | .458 | | |
| 전문기관 재배 기술지원 | 노지재배 | 42 | 3.19 | .740 | 3.631 | .030 |
| | 시설재배 | 27 | 2.85 | .662 |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35 | 3.31 | .631 | | |
| 노동력 확보 | 노지재배 | 42 | 2.29 | .891 | 6.613 | .002 |
| | 시설재배 | 27 | 3.00 | .784 |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35 | 2.63 | .690 | | |
| 정부보조사업 | 노지재배 | 42 | 3.48 | 1.065 | 2.388 | .097 |
| | 시설재배 | 27 | 3.00 | .961 |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35 | 3.27 | .547 | | |
| 감귤 유통구조 | 노지재배 | 42 | 3.00 | 1.361 | 1.003 | .370 |
| | 시설재배 | 27 | 2.85 | .662 | | |
| | 노지 및 시설재배 | 35 | 2.69 | .471 | | |

V. 감귤산업 발전 방안

1.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조성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품질의 감귤을 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받을 것인가이다. 이에 따라 감귤재배 농가들은 감귤원 1/2 간벌과 신품종으로 전환하거나 시설재배와 친환경 및 유기농 감귤 재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귤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FTA대응 명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감귤 APC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 “생산비 절감 생산구조 개선”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배작형별로 세분화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감귤원의 밀식재배 형태를 1/2간벌, 성목이식¹⁾, 등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1/2간벌, 성목이식을 할 경우 농가소득 감소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려는 농가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농자재 구입비 지원 등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귤산지유통센터(APC)에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고품질 감귤 저온저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저장 시 산이 줄어들어 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맛 또한 좋아진다. 이처럼 저온저장시설은 감귤의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생산비용 절감 대책

감귤농가는 농자재가격, 유류가격,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가조수입은 증가하였지만 농가경영비 역시 증가하여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였다.

1) 기존 감귤원에 밀식되어 심겨진 감귤나무들 중 품질이 좋은 나무를 골라 4~4.5m×3~3.5m 간격으로 성목을 새롭게 심는 방법

2011년 노지감귤 10a당 경영비는 858,399원으로 경영비율은 27.3%에 해당한다. 시설감귤 경영비율은 53.1%, 하우스 월동감귤 경영비율은 31.6%, 한라봉 경영비율은 30.5%, 세토까 경영비율은 32.2%이다. 노지감귤을 제외한 모든 작목은 조수입의 30%이상이 경영비에 해당한다. 즉 감귤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는 조수입·경영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V-1> 품종별 10a당 소득현황

(단위 : kg, 원, %)

| 작 목 | 수량 | 조수입 | 경영비 | 소득 | 소득율 |
|-------------|-------|------------|------------|------------|------|
| 노지감귤 | 2,977 | 3,137,758 | 858,399 | 2,279,359 | 72.6 |
| 시설감귤 | 5,970 | 30,805,200 | 16,384,988 | 14,420,212 | 46.8 |
| 하우스 월동감귤 | 2,576 | 9,255,568 | 2,925,326 | 6,330,242 | 68.4 |
| 한라봉 | 3,091 | 14,941,894 | 4,567,419 | 10,374,475 | 69.4 |
| 세토까 | 2,966 | 14,978,300 | 4,833,176 | 10,145,124 | 67.7 |

자료) 농촌진흥청, 2012

이와 같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설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FTA 기금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비가림하우스 시설 보조는 국고 25%, 지방비 25%, 용장 30% 자부담 20%로 시행되고 있다. 예산 편성 시 적용된 평당 단가는 108,000원인데 현재 계약단가는 120,000원~130,000원 이다. 평당 10,000~20,000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는 모두 농가자부담으로 귀속되어 농가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차액을 해결하기 위해 평당 단가를 실비로 적용시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시설(가온)감귤 재배의 경우 경영비가 10a당 16,384,988원이다. 경영비가 높은 이유는 가온을 위해서 온풍기를 돌려야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증류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지열을 이용한 가온

시스템이나 공기열 히트펌프 수축열 시스템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가온 시스템을 적용하여 생산했을 때 난방비는 증류를 이용한 온풍기를 사용해서 가온했을 때 보다 약 60%이상 난방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¹⁾ 따라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 고효율의 가온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귤재배를 위해 투입된 노동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통한 효율적 생산과 출하, 관·군의 노동인력 투입, 노동할 의사가 있는 노인노동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3. 수출확대 대책

감귤은 1990년 캐나다·싱가포르 등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러시아·영국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업체 수는 12개이며 2012년 수출 물량은 2,748 톤이다. 하지만 수출업체는 늘어났지만 수출 물량은 2002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수출이 가능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되어야 한다. 즉 연중수출을 위한 품종 개발과 수입국 농산물 검역 규정에 적합한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통합적 관리를 통해 감귤생산이력제와 마일리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 수취가격 제고가 필요하다. 주요수출국 농가수취가격은 러시아 kg당 453원, 캐나다 kg당 613원, 미국 kg당 826원, 영국 1,000원 이다. 국내 유통된 평균수취가는 870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 캐나다, 미국의 경우는 손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수출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이 끝났을 때 이 가격에 수출은 불가능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수취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출 국가 확대와 경쟁력 있는 바이어 발굴이 필요하며 수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 참여 농가에 대한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셋째, 수출전담조직 설립과 수출전담 APC를 건립할 필요가 있다. 수출전담 조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0 「환경뉴스정보」

직을 통해 수출 농가를 중점 관리하고 공동출하·공동정산을 하여 수출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가격적인 사항이 보장되었을 때 국내감귤가격 호조에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감귤 선별과정에서 외관, 당도, 산도 등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여 수출용 감귤을 선별하고 있지만 감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패도에 대한 측정도 필요하다. 운송기간이 보통 10~20일이 걸리며 최대 4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감귤 부패율줄이기 위해 포장단계에서부터 중점 관리가 되어야한다.

셋째, 농산물 수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세계의 감귤류 수급동향을 파악하고 감귤수출 전략수립을 위한 더 많은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수출·입 동향을 파악해 전략적 수출 계획을 통해 수출 물량 및 수출 품목을 결정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해 가격경쟁력을 높여야한다.

끝으로 수출용 감귤생산기반에 대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출확대 방안으로 생산기반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밝혀졌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감귤수출확대 지원 사업은 연구개발비, 해외 판촉비, 마케팅비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생산기반 확충·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은 유통시설 지원, 병해충 공동방제, 유기질 비료지원, 물류비 지원, 포장자재비 지원에 전체 사업비 21억 3천 만 원 중 7.3%에 해당하는 2억9천 만 원에 그치고 있다.

감귤수출에 대한 지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수출확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이 아닌 보조금을 받기 위한 수출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확대 지원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제도적 지원 강화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도 감귤 분야 지원은 한·미 FTA 체결 이후 2011년 대비 38.6% 증액된 1천 33억 원이다. 세부지원 내용을 보면 “ FTA 대응 명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가 가장 많은 759억 원이다. 다음으로 “유통조절 및 고품질 출하” 사업이 37억 이며, “감

굴수출확대 추진 사업”이 21억이다. <표 V-1> 은 감귤분야에 지원되는 사업과 사업비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V-1> 연도별 감귤분야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간 | 2011 | 2012 | 2013 |
|---------------------------|----------|-----------|-----------|
| 감귤수출확대 추진 | 1,780 | 2,133.5 | 3,974 |
| FTA대응 명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45,910 | 72,954.4 | 71,035 |
|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 627 | 2114.8 | 958.3 |
| 감귤 APC 등 산지유통시설 확충 | 18,615 | 20,352 | 21,900 |
| 감귤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 | 983 | - | 950 |
| 감귤 소비확대 홍보 강화 | 343 | 315.8 | 143.5 |
| 생산비 절감 생산구조 개선 | 3,079 | 1700.8 | 644 |
| 유통조절 및 고품질 출하 | 3,189 | 3,732.6 | 3854.7 |
| 합 계 | 74,526.0 | 103,303.9 | 103,459.5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특작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감귤분야 지원사업의 주된 목적은 고품질 감귤을 적정생산하고 출하 조절을 하며 수출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지원 사업에 반영되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첫째, FTA 협상 시 감귤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

하고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귤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농산물 수입과 대체 농산물에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감귤 출하 시기 조절, 재배작형 조정 등 품종별 분산 출하를 통해 감귤 수요를 늘려 한다.

둘째, 감귤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 감귤은 의료·식품·신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감귤의 효능과 기능을 이용한 가공품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감귤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감귤소득 안정화를 보장해야 한다. WTO 체제에서는 직접적인 가격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끝으로 감귤산업은 생산·유통·판매·홍보 등 감귤가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감귤산업 발전 및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저렴하고 맛있는 수입 농산물의 수입 장벽 붕괴로 인해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주감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미 FTA는 제주감귤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제주감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따라서 감귤산업을 발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및 노력이 필요하다.

VI.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감귤재배 농가의 영농형태, 영농경력, 재배면적, 재배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경영상의 특성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농가 조사를 통해 추출된 표본을 통계 분석하여 농가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구분된 농가유형별 경영상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교차분석, ANOVA분석 등을 통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II장에서는 감귤산업현황에 대해 기술하였다. III장에서는 한·미 FTA와 오렌지 수입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였는데 오렌지 수입이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계절관세 적용이 완화되는 3월부터 8월까지 감귤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렌지 수입관세 인하로 인한 가시적인 과수농가의 피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에서 2~5월까지 출하되는 감귤류를 생산하는 농가는 간접적인 수입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IV장에서는 감귤재배농가의 경영주 특성, 재배특성, 토지소유구조, 재배여건의 만족도, 감귤산업 전망 등을 조사하여 농가유형별로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감귤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귤재배를 하는 104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영주의 나이는 50대가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고졸이 47.1%, 대졸이 28.8%, 대졸 이상이 7.7%로 조사되었다. 영농경력을 보면 20년 이상~30년 미만 구간에서 30.8%로 가장 많았으며 40년 이상도 13.5%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를 보면 전업농이 73.1%로 이며 겸업농이 26.9%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 감귤 재배면적을 분석한 결과 전업농은 0.5~1ha미만이 24.0%로이며 2~2.5ha미만구간에서 18.3%로이다. 그리고 3ha이상도 3.8%로 나타났다. 겸업농의 경우는 1~1.5ha구간에서 57.1%로 나타났으며 2ha이상 재배면적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는 없었다.

감귤재배형태를 보면 노지재배를 하는 농가는 42호(40.4%), 시설재배는 27호(26.0%), 노지 및 시설재배를 하는 농가는 35호(33.7%)로 나타나고 있다.

농가유형별 노동력 투입량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주일간 가족노동력 투입량은

전업농은 4~5일 36.1%, 6~7일이 36.1%로 높게 나타났으며 겸업농은 3일이하가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배면적을 보면 1ha미만은 3일이하가 60.0%로 가장 높고 1~2ha미만은 3일이하가 32.4%, 6~7일이 27.0%로 나타났다. 2ha이상의 경우 4~5일이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배형태별로 보면 노지재배 농가는 3일이하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재배는 3일이하가 44.4%, 6~7일이 40.7%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력 투입량은 재배면적별로 보면 1ha미만은 30명 미만이 71.8%로 가장 높고 1~2ha미만은 30~60명 미만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2ha이상은 60~90명 미만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배형태별로 보면 노지재배는 30명 미만이 52.4%로 가장 높고 시설재배도 30명 미만이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노지 및 시설재배를 같이 하는 경우는 60~90미만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배면적을 농가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업농의 경우 1ha미만이 42.1%, 1~2ha미만이 22.4%, 2ha이상이 35.5%로 나타났다. 그리고 겸업농의 경우는 1ha미만이 28.6%, 1~2ha미만이 71.4%, 2ha이상은 없음으로 나타나 전업농에 비해 좁은 규모의 면적에서 감귤재배를 하고 있다. 재배형태별 재배면적을 분석한 결과 노지재배는 1ha미만이 38.1%, 1~2ha미만이 57.1%, 2ha이상이 4.8%이며 시설재배는 1ha미만이 85.2%, 1~2ha미만이 14.8%, 2ha이상은 없음으로 나타났고 노지 및 시설재배를 같이하는 경우는 1ha미만이 2.9%, 1~2ha미만이 25.7%, 2ha이상이 71.4%로 나타났다.

농가유형별 소득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업농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에서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겸업농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소득 수준이 71.4%로 높게 나타났다. 영농경력별 소득수준을 보면 20년 미만은 3,000만원미만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40년 미만은 3,000~7,000만 원 미만이 7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영농경력 40년 이상의 경우는 7,000만 원 이상이 42.9%로 높게 나타났다. 재배형태별로 소득수준을 보면 노지재배의 경우 3,000만원미만이 6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시설재배는 3,000~7,000 만 원 미만이 72.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지 및 시설재배를 같이 하는 경우는 7,000만 원 이상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감귤재배 연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감귤판매망 만족도 조사에서 노

지재배(3.00점), 시설재배(3.15점)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반면 노지 및 시설재배(2.69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문기관의 재배기술 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노지재배(3.52점)는 만족도가 높게 나온 반면 시설재배(2.85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지 및 시설재배(3.31점)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동력 확보 만족도 조사 결과 노지재배(2.29), 시설재배(3.00점)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설 및 노지재배의 경우 역시 만족점수 2.63점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감귤산업 발전 방안 모색해보면 첫째, 고품질화를 위한 기반 조성되어야 한다. 대량 생산을 위한 영농에서 고품질화와 규격화를 위한 생산기반을 갖춘 영농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감귤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정부 지원 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오렌지 수입량 증가와 대체과일(포도, 딸기)이 연중 유통되면서 감귤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판로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감귤 수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수출농가에 대한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제도적 지원은 감귤재배형태와 재배품종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세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지용, 고성보(2007),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감귤산업의 영향분석 및 중장기 발전 전략」, 제주감귤클러스터혁신위원회.
- 강지용, 고성보(1998), 「수입오렌지가 제주 감귤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소비자의 반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 문한필, 이현근, 박한울(2013), 「한·미 FTA 오렌지 관세인하가 국내 주요 과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농업경제연구, 제54호 제1권, (사)한국농업경제학회
- 강병직(2002), 「감귤산업의 원가절감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 정훈희(2009), 「우리나라 가족농의 경영특성에 관한 연구업의」,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은정(2009), 「감귤 유통 구조의 공간적 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한국은행 제주본부(2011), 「제주감귤 가격변동성 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3), 「한·미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5-01.
- 국회예산정책처(2010),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 현황 및 쟁점」, 사업평가현안분석 제28호.
- 김경덕, 김정호, 김종선(2012), 「농업 생산·경영 구조의 변화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R686.
- 최세균, 이대섭(2007), 「한·미 FTA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P89
- 김대식(2010), 「한·미 FTA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방안」,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심찬수, 오윤섭(2012), 「농업부문 FTA 보완대책의 추진현황 및 위험분석」, 감사원 감사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7),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 임보광(201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노수정, 이상학, 조재환(2012), 「수입 오렌지와 국내산 과일 수요의 가격 및 지출 탄력성 추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35권 제4호 81-96.
- 농촌진흥청(2012), 「2011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감귤 유통처리 분석」, 각 년도.
- 농림축산식품부(2012),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각 년도.
-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홈페이지(<http://www.kati.net>).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http://www.kita.net>).
- 농민신문 홈페이지(<http://www.nongmin.com>).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부표1. 감귤농가 경영실태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2013학년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제출에 사용될 설문지로서, 제주감귤 경영실태 조사 및 감귤산업 발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부담 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를 통하여 얻어진 귀하의 고견은 본 연구조사 작업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실대로 그리고 생각하고 계신 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귀하의 협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3.

제주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지도교수 : 강 지 용 (☎ 064-754-3352)

연구자 : 채 윤 성 (chae5598@naver.com)

1. 경영주 일반현황

| | |
|-----|--|
| 성 명 | |
| 연 령 | |

14. 감귤재배를 위한 경영비 중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1순위: 2순위:)
 ① 농약비 ② 비료비 ③ 농기계 구입 및 수리비 ④ 토지 임차료
 ⑤ 고용 노동비 ⑥ 기 타()

15.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감귤재배관련 경영비 절감 방법은?
 ① 퇴비사용 ② 농약·비료비 지원 확대 ③ 농기계 공동사용
 ④ 관·군에서의 인력지원 ⑤ 절전형 보온시설 보급 ⑥ 정부지원사업 확대
 ⑦ 기타

16. 감귤재배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 구 분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
| 감귤 가격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 감귤 판매망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 재배기술 정보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 전문기관(농·감협, 기술원 등)의 재배기술 지원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 노동력 확보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 정부보조사업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 감귤 유통구조 | ① 매우 불만족 | ② 불만족 | ③ 보통 | ④ 만족 | ⑤ 매우 만족 |

